

직장인에서 힐링센터 원장까지

실제 졸업생 5인의 이야기

“나이와 직업은 달라도,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에서 힐링센터 원장까지 – 실제 졸업생 5인의 이야기》

“나이와 직업은 달라도,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실제 졸업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같은 40대 직장인, 50대 자영업자, 60대 은퇴자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걸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성공 사례 ①

45 세 직장인 김진우 씨 – 월급쟁이에서 힐링센터 원장으로

김진우 씨는 40 대 중반, 은퇴 불안과 함께 반복되는 직장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찾은 힐링센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장중경한의대 편입 출신의 50 대 졸업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 가능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온라인 강의, 주말·방학 집중 실습을 병행한 끝에 3 년 만에 졸업. 현재는 하루 8 명 환자를 돌보며 월 800 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예전에는 월급날이 기다려졌지만, 지금은 매일이 월급날입니다.”

성공 사례 ②

52 세 자영업자 이성호 씨 – 자연치유 강사로 전환

이성호 씨는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건강식품과 자연치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과 기존 경험을 결합해 자연치유 강의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1년 차에만 연 매출 1억을 달성하며 강사와 치유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 "내 경험이 수익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성공 사례 ③

60세 은퇴자 박정희 씨 - 은퇴 후 제2의 강의 인생

공기업에서 퇴직 후 무료한 생활을 이어가던 박정희 씨. 건강도 악화되며 무력감을 느끼던 중, 또래 졸업생들의 도전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학업을 이어간 끝에 졸업 후 시니어 건강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동년배에게 건강과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돈보다 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성공 사례 ④

48세 피부·요가 강사 - 프로그램 확장

요가와 피부관리 강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웰빙 트렌드에 맞춰 한방 지식을 접목하고 싶었습니다. 장중경한의대 편입 후 배운 지식을 통해 '요가+한방 치유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 강사들과 차별화된 포지션을 확보했고, 현재는 강의료와 시술 결합으로 월 매출 1,200 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내 프로그램은 이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⑤

50 대 무면허 침구사 - 합법적 힐링센터 대표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시술을 해왔던 이 씨는 늘 법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식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 정식 힐링센터를 개설했고, 안정적인 환자 모집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 "이제는 떳떳하게 환자를 맞을 수 있습니다."

Key Message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 시작했느냐, 주저했느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 년 후 이 성공 스토리에 당신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